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실과 과제

- 김바울 (로고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장 / 2003. 5. 27 -

한 해 동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약 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내에 인가된 대안학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전체 학생은 약 3,00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산간벽지에 있기 때문에 어린학생들이 불가피하게 가정과 떨어져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평가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대안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려 할 경우 학부모의 60% 이상이 동의한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대안학교교육이 하나의 새로운 교육형태로 인정받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학교 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곳곳마다 다양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대안학교는 특성화 대안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국내에는 인가 받은 특성화 대안학교를 제외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약 6개 정도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두개의 특성화학교 외에는 모두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수가 기독교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수요에 비해 현실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있어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대안학교 설립규정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대시설로는 학교설립이 어렵습니다.

학교설립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단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예처럼 차터스쿨, 거리학교, 벽 없는 학교 등과 같은 혁신적인 학교도 설립이 가능한 법령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정부에서 홈스쿨 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배울 아이들과 가르칠 교사가 있으면 학교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새 교육제도로 정착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물론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조차 대학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는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바꿔 반드시 인가 받은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현행 법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간섭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못 미친다 해서 기독교 교육을 포기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생각의 폭을 넓힌다면 그리고 가능성을 향해 시도해 본다면 아직도 기독교적 대안교육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커리큘럼의 문제 때문이라면 지금 인터넷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들이 많다고 봅니다.

먼저는 정부당국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며, 협조보다는 의무교육이라는 조항을 들어 여러 간섭과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보조가 없이 학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비를 비싸게 올려 학비가 부족해 교육을 받기 원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학교의 목적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과 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가정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과 교재는 국내 것이든 외국 것이든 성경적으로 통합된 커리큘럼이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몇몇 가정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의 훌륭한 지역 크리스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사역은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명과 믿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 규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학교형태의 규모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상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학교의 시설보다는 교육 내용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교의 규모나 시설이 학교의 수준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이지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고, 교육의 내용이 충실하고 열정적인 가르침과 성실한 배움이 있을 때 그러한 학교를 우리는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학교는 단지 기독교교육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교육에 진리와 인생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비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커다란 역할과 사명이 기독교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할 기독교학교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